

# 의과대학평가 “의과대학표준화 -표준화의 추진전략 및 접근방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 영 명

## 표준화의 추진전략 및 접근방안

전략이라고 하면 목적이나 목표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학교육의 과정을 목표설정과 교육방법 및 평가의 3단계로 나누어 교육의 주기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선 의과대학 평가의 목적과 목표부터 나름대로 정해보자.

### I. 목 적

목적이라면 일반적으로 의과대학 평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말할 것이다.

- ① 표준화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믿을 수 있는 의사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 ② 표준화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과대학 중 일정 수준 이하의 대학을 정리하겠다.

### II. 목 표

표준화사업의 목적이 결정되고나면 다음으로는 이러한 표준화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성취하겠느냐를 합의하여 목표로 삼아야 한다.

- 여기서 구체적인 목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표준화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 ② 표준화사업을 통하여 의과대학들이 스스로 자체 발전을 도모하게 한다.
- ③ 표준화사업을 통하여 그 결과를 일반에게 공지케

함으로써 신입생 모집 등에 경쟁을 유도케 한다.

- ④ 표준화사업을 통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대학을 행정적으로 차등 지원케 한다.

### III. 여건분석

이상의 목표가 정립되면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키 위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략을 세우기 전에 먼저 점검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리의 여건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1. 대학평가의 경험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의과대학평가의 경험으로서 1981년에 문교부 개학교육국의 사업으로 실시한 신동훈 교수 등의 경험과 1988년에 대학교육협의회 사업으로 김용일 교수 등이 실시한 사업을 들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들 두 번의 사업은 의과대학평가제 도입을 위한 시험조사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의과대학 교육현황 조사

1971년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발족된 이래 매 격년제로 조사, 발간되고 있는 의과대학 교육현황이 이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3. 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

198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된 이래 교육부가

말아서 실시하던 대학평가를 대학협의회가 자율적으로 법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 대학평가 사업이 케도에 올라 1988년부터는 기관자체평가를 주로 해 오다가 금년부터는 대학종합평가제로 발전하여 앞으로는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신임제도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평가의 방법도 자체평가와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를 겸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다.

#### 4. 대한의학협회의 의과대학 평가사업

대한의학협회에서는 우리의 의료현실을 체계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우선 의과대학교육부터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뜻도 있고 하여 의과대학 평가사업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 5. 병원표준화사업

이와 유사한 경험으로서는 1963년부터 실시하던 수련병원지정심사를 1965년부터 병원신임업무로 발전시키고 이를 다시 1981년부터 병원협의회 위임사업으로 현재의 수련병원신임업무로 발전, 정착시켜 왔다.

#### 6. 미국의 의과대학평가

또한 미국의 예로서는 1973년에 조직된 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LCME)이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와 The Council on Medical Education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후원으로 시작된 의과대학 심사를 들 수 있다.

### IV. 운영체계

우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목적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흔히 경험하는 일이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일에는 적극적인 협조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참여의 폭을 넓힘이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참여의 폭이 너무 넓어지고 다양해지면 모이기도 어렵고 합의에 도달하기도 어려우며 이것저것 가리다 보면 추진력도 약해진다. 따라서 효과와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되며 어떻게 구성함이 바람직스럽겠는가.

#### 1. 운영주체

##### 1) 확장협의회가 주체가 되는 방안

학사운영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의 모임이므로 우선 결정이 신속하고 실천이 용이하며 대학 안의 여러 교수들을 동원함에 편리하겠다. 따라서 효과적이며 효율적일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 우리의 현실로서는 그 임기가 짧다는 것과 투자와 인사에 있어 실질적인 재량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점,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면에서는 오히려 주체로서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도 염려된다.

##### 2) 전문학회 또는 교육기관 등 교육단체가 주체가 되는 방안

전문성과 관심을 가진 교수들이 지속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우선 이러한 사업단체가 아니며 집행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 3) 의협 등 의사단체가 주체가 되는 방안

의료계의 전반적인 의견과 인력동원이 가능하며 대외적으로 의료계 스스로가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에 공헌한다는 명분도 있겠고 예산적인 여력도 있겠으나 이를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할 일이 많다.

##### 4) 대학교육협의회의 법정사업에 맡기는 방안

이미 법정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동참하면 살천력과 활용면에서도 힘을 갖게 되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의학교육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감안할 때 너무 경직화되고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

##### 5)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

이상의 관련단체 중 주체로서의 참여가 필요한 단체

와 후원단체로서 도움을 줄 단체를 구별하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경우 단체간의 이해를 사전에 조정할 수 있고 목표를 설득력있게 밀고나갈 수 있는 추진력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운영에 따라서는 형식에 치우칠 우려도 있다.

## 2. 전문위원회

일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문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운영이 바람직스럽다.

### 1) 기획위원회

의과대학 평가의 틀과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하는 기구로서 목적과 목표 등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검토하는 기능을 맡는다.

### 2) 기준연구위원회

평가대상이 될 분야, 부문 및 항목 등을 연구하고 평가항목별 표준 내지 기준을 연구하는 기능을 맡는다.

### 3) 평가위원회

제출된 서면조사서를 검토하고 현지방문에서 확인할 사항을 도출하며 평가원의 구성과 평가방법 등을 연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4) 활용방안연구위원회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기능을 맡는다. 이상의 예시한 위원회의 기능은 상당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요하므로 위원회의 구성에 상당한 배려가 요구되며 위원회 기능의 독립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3. 사무부

실제에 있어 이와 같은 대학평가사업을 수행키 위하여서는 사무적인 실무가 많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평가사업이 연중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평가대상이 될 의과대학의 수도 32개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전임 사무부의 운영이 필요할런지가 의문이다. 그렇다고 시간제나 임시직의 도움으로는 체계적인 발전을 기하기 어렵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검토되어

야 한다.

## V. 평가대상

다음으로는 무엇을 평가 하느냐가 문제이다. 있을 수 있는 평가의 내용으로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 1. 대상학과

우선 평가대상 대학을 의과대학에만 국한하겠느냐, 아니면 의학계대학, 즉 의과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한외과대학 등 의학계열 대학을 같이 할 것이냐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대학교육협의회의 사업과의 관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동시에 의과대학을 먼저 하고 다음에 여타 의학계학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 2. 대상분야

대한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학교육평가 대상분야로서는 대학목표,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행·재정 등이 된다. 그러나 의과대학 평가에서는 흔히 의과대학 교육에 관한 사항, 연구에 관한 사항, 부속병원과 대학원에 관한 사항 및 평생교육 등 사회봉사에 관한 사항 등의 분야가 평가대상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평가대상이 될 부문으로는 의과대학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것부터 점검함이 바람직하다.

#### 1) 조 직

의과대학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기본을 최단시일 내에 이수케하기 위하여 예로부터 예과제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2년제 예과교육이 종합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6년제로 의과대학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감안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종합대학에 속하여 있으므로 많은 시설과 운영이 종합대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의과대학 단독의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의과대학은 부속병원이 필수적이어서 다른 대학과 달리 이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부속병원이 multihospital system의 발달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해지고 있어서 단순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대학에 따라서는 간호학과 및 보건학과의 관계 같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우선 조직면에서 평가의 대상을 정리하여야 한다.

## 2) 기 능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의과대학의 사명과 기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의과대학의 기능은 크게 나누어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의과대학생들에게 의사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습득케 하며 나아가서 평생을 통해 변모하는 최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초를 닦게 한다.
- ② 의학연구는 물론 의료제도, 생명과학 등 의료관련 분야의 연구를 진작한다.
- ③ 졸업후 교육과정으로 전공의교육과 대학원교육의 책임을 진다.
- ④ 의사의 평생교육을 책임진다.

## 3. 대상부문

지금까지 과거에 시도되었던 조사와 현재 대학교육협의회가 진행중인 조사의 대상부문과 이에 따른 문항을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이상의 결과에서도 보듯이 대상부문과 항목에 무엇을 포함하여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결과활용에도 이해관계가 많이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작성하는 데는 부문별로 전문가의 모임을 활용하는 방안과 기준연구위원회에서 일괄 작성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VI. 평가방법

평가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서면조사와 현지방문조사로 대별할 수 있다.

### 1. 서면조사

서면조사방법에는 조사문항에 따라 자료를 기입하는 방법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하는 대로 자체평가보고서

형식을 택하는 방법이 있다. 아마도 의과대학의 경우는 그 내용의 유사성과 조사의 목적 등을 감안할 때 조사문항식조사가 더 효율적일지 모른다. 그리고 이 서면조사서의 평가결과는 현지방문조사의 자료 및 지침이 된다.

## 2. 현지방문조사

현지방문조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누가 조사원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각 대학의 학장이나 교무과장이 포함되어 실시하는 데에도 서로 배운다는 뜻이 있을 수 있으나 조사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은 조사의 신빙성은 있을 수 있으나 협조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전문가가 얼마나 있겠느냐도 문제이다. 현지조사에서는 실제의 사실 여부의 확인과 조사항목의 질적 수준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서는 평가의 기준이 가능한한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확인 내용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다 없다면 표시하는 방안과 그 질적 수준에 따라 등급을 포기하는 방법이 미리 고려되어 있어야 한다.

## 3. 평가주기

현재 진행중인 대학교육협의회에 의하면 매5년마다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병원신임업무는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의과대학의 경우 예과를 포함해 6년제인 점을 감안해 얼마 주기로 하는 것이 좋을런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대학을 같은 주기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아니면 일정 수준 이상인 대학은 매 5~6년마다 평가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대학은 기준에 도달될 때까지 보다 자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신설대학인 경우는 얼마나 자주하고 도와 주어야 하는지도 겸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방법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을 가질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한 이의가 없을 수 있겠으나 이것이 주관적이고 평가자의 재량이 작용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때에는 결과 활용상에 저항이 많을 수 있다. 따라서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이 전문가에 의해서 면밀

표 1. 평가사업별 조사 부문

	문교부	대한교육협의회	의과대학교육현황
교육목표	+	+	+
목표체계			목적 및 목표
목표의 내용			
실정방법			
목표달성			
교육과정	+	+	+
과정개선	과정작성, 평가 (과정간 협의기구)		교육과정위원회
과정구성	개설과 목표	과정편성	특성, 통합, 선택 개설과 목표
교육내용	강의, 통합		
수업지도	교과목 운영방침	과정운영	
실험교육			
실습교육			
학습평가	종합시험, 졸업논문		교외, 임상실습 평가, 학적기재, 유급제적, 개업의 연수교육
학생	+	+	+
학생선발	(입학제도, 예상성적, 편입학제)	학생, 대학원생 현황 입학제도	학생 현황
학생지도			
학생자치활동			
학생복지	휴게실, 기숙사	장학, 학생회비	장학금, 기숙사
학생산출		졸업수, 취업	
교수	+	+	+
인사			
교수의 구성	현황표	교수 현황	교원, 조교 현황
교수여건	외래, 시간		
교수연구	연구실적	연구실적	
부설연구소	(연구소)	부설연구소	의학계 연구기관
교수개발	(임용승진, 임용실적-계획, 급여 급여, 복지)		
시설 및 설비	+	+	+
시설	실습, 연구실, 도서관	연구, 도서, 회관 등	도서관 장서
설비	실습기자재 (컴퓨터)	컴퓨터	시청각기자재
부속병원전공의수			부속병원전공의수
경영 및 재정	+	+	+
의사결정	교수회 기능, 운영 (편제)		
기획	(장래계획)		
재정확보	(세입, 세출, 투자실적)	세입세출	
재정운영	과운영, 실습비		
환경	(대학 전반)		대학원생 현황

하게 짜여져 있어야 한다.

## Ⅶ. 평가결과의 활용

우선 평가결과는 목적하였던 대로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목표에 따라 공통된 문제점과 대학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쓰는 방법과 둘째로 목적하였던 대로 수준 이하의 대학을 자극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사회에 공개하여 학교별 우열을 공시케 하고 보원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을 통하여 경쟁적 발전 노력을 유도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뜻 있는 평가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하여서는 처음부터 행정 및 재정적 차등지원을 통한 강제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보다는 우선 비공개적으로 자체적 개선 노력을 당분간 유도하다가 점진적으로 평가사업의 정착과 신빙성 향상에 따라 행정 및 재정적인 강압방법으로 발전시킴이 좋지 않을까 한다.

또한 강조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평가결과를 외부적으로 대학에 적용하는 것 외에 내부적으로 이러한 평가결과가 환류되어 대학평가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현실성 있게 수정 보완하여 대학의 발전 향상에 따라 평가기준도 점차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순환 적용되어야 한다.

## Ⅷ. 결 론

의과대학 평가의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의과대학의 교육이 바르게,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목적과 방법 및 평가가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의 3대 기능 중 교육 이외의 연구와 진료 또는 사회봉사가 얼마나 바람직스럽게 수행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뜻 있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전략을 마련하여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이다. 우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 들어 급격한 의과대학의 증설과 이에 따른 의사인력양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게 되었다. 동시에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변칙졸업생들의 유입문제도 대두되게 되었다. 또한 특히 기초교원의 수급문제 등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러한 제 여건들로 인해 의과대학 평가의 필요성이 고조되게 되었다.

다음으로 누가 이러한 일을 맡아서 수행하면 잘 되겠냐 하는 문제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간 관련 경험을 토대로 참여의 폭을 극대화하면서 전문가를 양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도 무리한 추진보다는 협의 타당성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히 기준의 설정과 평가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도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결과의 환류는 물론 결과 활용에 있어 무리한 역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